

# The Normandy Life

프랑스인보다 더 프랑스적인 삶을 영위하는 영국인으로 유명한 샤론 산토니|Sharon Santoni. 격월로 발간되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마이 프렌치 컨트리 홈My French Country Home>의 발행인이다 본인 이름의 블로그와 쇼핑몰을 운영하는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인 그녀의 1백80년 된 프랑스 노르망디 저택을 찾았다.

“프랑스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완전히 녹아들어 살아왔기 때문이죠.” 파리를 떠나 노르망디의 그림 같은 집에서 살며 전 세계 여성들의 로망인 삶의 모습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2의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샤론 시토니는 그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1백80년 된 고택에는 4명의 아이를 키운 가족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 그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지금은 남편 애릭과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살며 여유를 만끽하며 지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이 프렌치 컨트리 홈>(이하 MFCH) 매거진의 발행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끈 것.

2010년,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던 샤론은 중년 이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블로그를 시작했다. 낡고 느린 컴퓨터로 시작한, 미미해 보였던 일상의 루틴이 4년 정도 지속되자 매일 수천 명의 방문객과 5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샤론의 삶은 4명의 자녀를 키우던 시기 이상으로 분주해졌다. 블로그를 통해 쌓인 수많은 콘텐츠와 그녀만의 감각으로 <MFCH> 매거진을 발행하게 되었고, 라이프스타일에 관련한 2권의 책을 짜필했으며, 프랑스의 감성을 담은 물건을 골라 판매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 경험이 전혀 없던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프랑스 문화를 알리는 앰버서더로 화려한 변신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영화처럼 드라마틱한데, 이는 약간의 안목과 감성, 부지런함 덕분이라고 차분히 말하는 그녀. 대대손손 전해 내려온 고가구와 앤티크 시장에서 보물찾기 하듯 밭풀을 들여 발견한 조명과 그림, 소품으로 채우고 꾸민 그녀의 집에는 다른 곳에선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스토리가 있다.

## 노르망디에 산다는 것

“주변에 훌륭한 레스토랑이 있지만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요리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이곳의 자연스러운 여가 활동이에요. 특히 이상적인 가족의 삶을 고려한다면 이런한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바다가 가깝고 주변에 숲과 넓은 들판도 있어 승마를 배우기 좋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원에서 조망말도 키웠답니다.” 노르망디의 삶에 관해 설명해달라고 하자 그녀의 친시가 쏟아졌다. 4명의 아이가 승마를 하고 뛰어놀던 넓은 정원은 꽃을 심고 장식을 더했고 얼마 전에는 수영장도 직접 만들었다. 1백80년 된 고택이라 수도 시설을 손봐야 하는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지만 집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수영장을 완성했다고. 그리고 최근 벽을 다시 칠하고 커튼을 새로 달아 인테리어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기성품이 아닌 자신의 취향에 맞춰 손수 완성한 물건을 선호하는 그녀답게 프랑스 최고급 패브릭 브랜드 피에르 프레이|Pierre Frey 제품을

약 1년에 걸쳐 직접 조성한 수영장. 따로 시간을 내 운동을 하지 못하는 뒷에 올여름에는 본인이 만든 수영장에서 꾸준히 수영을 해볼 계획이라고.



광활한 정원 끝에 자리한 1백80년 된 고택에는  
장미 덩굴이 벽을 기득 넓고 있다.  
매일 아침 두 번려견과 정원을 산책하며  
꽃을 잘라 집 안을 장식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 1 프랑스 브랜드 지안Glen의 접시를 선호하며 패브릭 낱킨은 베룩시장에서 구매했다. 플라워 패턴의 쿠션은 직접 제작한 것으로 mystylisffrenchbox.com에서 판매한다.
- 2 프랑스에서 수작업으로 만드는 라캉슈Lacanche 오븐 레인지 옆에는 요리 책을 수납하는 책장을 두었다.
- 3 빈티지 가구와 그림이 가득한 거실, 양투아네트 푸아송Antoinette Poisson의 패브릭으로 제작한 커튼이 정원 풍경과 잘 어울린다. 소파 위 쿠션들은 피에르 프레이 Pierre Frey 패브릭으로 제작한 것.
- 4ダイニング 룸의 창가 커튼도 양투아네트 푸아송의 패브릭으로 만든 것. 그녀의 집을 그린 그림은 브라질 화가 알베르토 니콜라우 다 코스타Alberto Nicolau da Costa가 직접 이곳을 방문해 그린 것.

구입해 직접 쿠션을 만들고, 좋아하는 브랜드 양투아네트 푸아송Antoinette Poisson의 패턴이 들어간 천으로 커튼을 제작했다. 가구 또한 다르지 않다. 그녀의 집 어디에서도 ‘한번 본 듯한’ 브랜드 가구를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앤티크 마켓에서 발견한 보물 같은 고가구와 소품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성 들어 아기자기하게 집을 꾸미는 이야기를 하던 중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영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했더니 워낙 주문이 많아 올해 안에는 시작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과감하게 남편과 둘이 직접 하자고 했죠. 구덩이 파는 포클레인부터 빌리고 직접 방수 처리법을 공부해나가면서 1년 만에 완성했어요”라며 서바 이벌에 버금가는 인테리어 경험담을 덤덤하게 전할 때는 터프한 시골살이를 거침없이 해내는 강한 여성의 면모도 느껴졌다.

#### 세상에서 가장 안온한 곳

1997년 이사 온 후 24년간 지낸 이 집에서 사론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모두 ‘식사’와 관련된 곳이다. 그중 하나가 넓은 테이블이 놓인 테라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가장 많이 만든 장소이기 때문. 그리고 아끼는 장소로 주방을 꼽는다. “주방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가족과 친구가 모이는 사교의 장이라는 생각을 해요. 함께 식사 준비를 하는 것부터 음식을 다이닝 룸 테이블로 옮기는 과정 모두 사소한 것 같지만 많은 교감과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가족의 대화로 가득한 공간에는 앤티크 마켓에서 고른 화려한 바ロック풍 상들리에와 20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빈티지 램프, 그리고 그녀가 직접 셀렉트해 판매 중인 버터 그릇 등 다양한 주방용품, 소품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모서리 천이 살짝 벗어진 의자나 볼륨감이 사그라든 소파는 브랜드 제품의 획일적인 아름다움과 다른, 전원 속 고백만의 고상함을 지니고 있다. 패턴이 강한 패브릭과 앤티크 가구의 장식적인 면모를 중화하기 위해서 주로 뉴트럴 계열의 중성적인 컬러를 선택해 어수선한 느낌을 피하는 것이 사론이 제안하는 ‘노르망디 컨트리 하우스 스타일링’ 팁. 이런 본인만의 스타일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 사론은 지역에서 열리는 베룩시장과 숨겨진 앤티크 매장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다. 이처럼 노르망디의 영국인은 프랑스인보다 더 프랑스인답게 이 지역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중이다. 8월 말까지 붉은 장미가 담벼락을 뒤덮고 색색의 꽃과 수영장의 푸른 물이 더없이 활기찬 노르망디의 여름 풍경을 전 세계에 전하며. **h**